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딜로이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의 최신 경제 뉴스와 트렌드 분석

안녕하세요. 딜로이트 인사이트는 글로벌 경제 및 산업 구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소개하고 최신 경제산업 데이터와 그 함의를 분석한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를 매주 금요일에 발행합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이라 칼리시(Ira Kalish) 박사를 비롯한 딜로이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네트워크(DGEN)가 매주 배포하는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를 통해 중요한 세계 경제 동향을 간편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는 국내 유력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부 배포되고 있으며, 딜로이트의 풍부한 경제·산업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플랫폼의 기초 콘텐츠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및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및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2주차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대해 다룹니다.

 인쇄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 및 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가운데 주요국의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이 임박하자, 주요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물론 민간 은행과 기업, 투자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DiFi) 시스템의 핵심 암호자산(crypto asset,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가 지배하는 기존 통화제도의 구조가 재편된다는 의미다. 이는 금융 및 자본시장의 기회이자 위기이다.^[1]

개별 법정화폐간 교환 방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자금결제시장에서 수십년 동안 미국 달러화의 지배력이 공고해졌지만, 기축통화가 부여하는 막대한 ‘시뇨리지’(seigniorage) 특권을 두고 주요국의 보이지 않는 통화 패권 경쟁이 오랜 역사로 이어져왔다.^[2]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성장하자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제국들은 미국에 유리한 암호자산 시장이 자국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자국 통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줄거나 대체되지 않도록 대항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일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구사하는 이른바 ‘신(新)중상주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3] 그 핵심이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통화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미국 달러화에 대항하고 기회가 있을 때 기축통화 자리를 노리기 위해 1999년 유로화를 출범한 유럽은 현재 미국의 전략을 ‘크립토(암호자산) 중상주의’(crypto-mercantilism)라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으로 부르기도 한다.^[4]

미국은 올해 6월 17일 상원 본회의에서 소위 ‘지니어스’(GENIUS: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of 2025) 법안^[5]을 가결하면서 디지털자산인 암호자산(crypto asset)이 제도권으로 본격 편입되는 길을 열었다.^[6]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이 발의된 상태다.^[7] 앞서 일본

(개정 자금결제법)과 유럽(암호자산시장 규제법, MiCAR) 등은 이미 관련 법률이 발효되어 규제 프레임워크가 작동 중이다.^[8]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과 미국의 디지털 금융 전략과 주요국 규제, 화폐의 단일성 문제와 중앙은행의 신뢰성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스테이블코인, 암호자산 넘어 지급결제 수단으로 성장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주요 암호자산 거래수단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지급결제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이 이를 적극 육성하여 달러화의 지배력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치안정성과 접근성, 거래 효율성 면에서 기존 법정화폐 지급결제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법제화가 완성될 경우 이용 규모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9]

코인게코(Coingecko)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말 현재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 규모는 미화 3조 4,600억 달러를 상회하며, 그 중에서 비트코인(BTC)의 비중이 약 61.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더리움(ETH)의 비중이 8.5%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더(Tether)의 USDT가 4.55%, 서클(Circle)의 USDC가 1.78%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 규모는 약 2,437억 달러로 암호자산 전체 시가총액 대비 7%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미국 달러 준거형 코인인 USDT와 USDC의 비중이 90%를 차지한다.^[10]

그림 1.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2020.6.~2025.6)



2024년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 (만 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투자자 수	1,672	1,686	1,693	1,703	1,764	1,825

*월말 기준

2024년 국내 가상자산 예치금 규모 (조 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치금	4.9	4.5	4.4	4.7	8.8	10.7

*월말 기준

2024년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 (조 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유대금	58.6	50.6	54.7	58	102.6	104.1
거래대금	2.9	2.8	2.8	3.4	14.9	17.2

*보유대금은 월말 시가평가 기준. 거래대금은 월중 기준(개별 가상자산 체결가격*체결수량)

자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미국 경제 전망(2025년 2분기)

2025년 7월 1주차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Perspective | 20 minute read

‘12일 전쟁’ 후 국제유가 급락 배경과 전망

2025년 6월 4주차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Perspective | 20 minute read

‘이란-이스라엘 군사 충돌’과 금융시장 동향

2025년 6월 3주차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Perspective | 20 minute read

미국 무역 적자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

2025년 6월 2주차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Perspective | 20 minute read